

致 辭

삼보에 귀의하옵고,

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신 신록 오월에 봉축일을 맞아 ‘제16회 한국불교사진협회 회원전’ 과 제5회 청소년디지털불교사진 공모전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

불교는 이 땅에 전래된 이후 1700 년의 세월동안 민족의 정신이자 문화로서 그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. 특히 건축, 회화, 의식, 복장, 석탑, 석불, 마애불등은 장엄하고, 경건하며 환희로운 독창적 불교문화를 형성하면서 그 자체가 불국토이자 대중을 불교로 이끄는 구심점이 되어 왔습니다.

아름다운 우리나라 산하의 풍경과 처처에 산재한 불교문화를 카메라 렌즈에 담는 일은 진아(眞我)를 찾는 일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. 한 장의 사진을 얻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열정 자체가 바로 수행이기 때문입니다. 그렇게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창작된 영상물은 모든 이에게 아름다움과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며, 이는 불교사진 작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복락이라 생각이 듭니다.

사진은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영상예술이라고 합니다. 백 마디의 말보다 사진 한 장이 훨씬 더 강한 느낌을 전할 수 있습니다. 그런점에서 사진작가 여러분은 훌륭한 포교사이자 대승보살입니다.

한국불교사진협회가 5년 전 부터 청소년불교사진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부처님의 공덕을 체험케 하여 원대한 꿈을 키울 수 있는 계기의 장을 마련한 것은 참으로 의미있는 일이며, 불교의 미래를 밝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.

불교사진협회 회원들과 공모전에 참여한 청소년 여러분과 수상자에게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불기 2555년 부처님오신날
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
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장 자 승